

2023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사무국장:박정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기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총 20명 중에 14명이 참석해서 선원이 되었기에 시각장애인 스포츠 설명 23년도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및 의장인사	
사무국장:박정진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순봉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이사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쨌든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사님들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가 다 잘 풀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스포츠연맹이 새롭게 도약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도 옮겨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사무공간을 마련했고 실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도 열어서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체육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좀 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순채택	
회장: 홍순봉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순 채택을 하겠는데요. 보고 사항에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가 있고요, 안전 심의에 가서는 안전이, 제1호 안전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이 있고요, 2호 안전이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있고요, 3호 안전이 시각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이 있고요, 4호 안전이 위임 전결 규정 개선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전이 있고요. 유인물대로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의사봉
회장: 홍순봉	그러면 보고 사항으로 전차 회의록 초록을 보고해 주시죠.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정진	<p>네 전차회의록 초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회의장 2022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2차 임시 이사회, 일시 2022년 8월 17일 14시 장소는 우림블루라인 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총 18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p> <p>보고사항으로 전차회의록 보고, 법인 사무실 이전 보고를 하였으며 의결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주사무소 변경, 보통 재산의 처분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가결 하였습니다.</p> <p>네, 이상입니다.</p>
회장: 홍순봉	전차 회의록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 오기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사 일동	없습니다.
회장: 홍순봉	없으시면 이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네, 이대로 접수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네, 감사 보고를 해 주시죠.
사무국장: 박정진	<p>네,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p> <p>감사 기간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됐으며 연맹 회의실에서 감사 2명 배석인원 2명 박정진 사무국장과 경영지원부 정영진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행정사항 등입니다. 감사님을 대신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감사보고서, 회계감사 결과, 우리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한 바, 일반회계 총세입 10억 6,890만 8,358원, 총세출 10억 773만 8,390원, 총세입·세출 잔액은 6,116만 9,968원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계정 총수입 1억 1,371만 5,149원, 총지출 1억 287만 9,114원, 총수입·지출 잔액은 1,083만 6,035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7억원, 법인화지원금은 예치된 정기예금입니다. 현재 자산 현황으로 기본재산인 법인화지원금 7억원과 보통재산 사무기기, 차량 등 1억 7,077만 7,337원, 총 자산 8억 7,077만 7,337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하며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p>

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맹의 예치된 법인화지원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과실금을 사업비나 법인자립을 위한 재산 축적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2020년 정기이사회에서 법인화지원금을 건물 매입 및 건물 보증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나 아직 주무부처의 법인화지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자체예산을 통해 작년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었으나 아직 법인 자립을 위해서는 법인화지원금의 과실금을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의 위상에 맞게 재정자립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법인화지원금 및 과실금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년 법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한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지원, 종목별대회개최 지원, 어울림대회개최 지원 등 시도지부에 지원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 지원되어 전국에 균형적인 시각장애인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스포츠대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우리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전국시각장애인스포츠대제전을 통해 시각장애인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의 규모가 더욱 확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등급분류 사업,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스포츠 캠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등 중요한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꾸준한 노력은 매우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연맹에서는 전문체육 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보급과 유소년 선수들의 육성도 같이 추진해 나가며 학생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있는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연간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해에도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연맹이 요구하는 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의 감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감사 임진형, 감사 윤상원

네, 이상입니다.

회장: 홍순봉	이 자리에 감사님들이 출석을 안 하고 계신데요. 혹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이사: 임조성	법인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됐다고 감사 지적 사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홍순봉	<p>법인 만들 때 7억 원을 법인화 지원금으로 문체부에서 예치를 해줘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가 문체부하고 계속 작년 초부터 협의를 한 것이 이것을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뭔가 건물을 아니면 어떤 사무실 매입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p> <p>근데 무슨 될 듯 이렇게 답을 되는 듯 되는 듯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또 사실은 어렵다. 이게 문화체육부에 장애인체육과장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어렵다라고 답은 왔고, 과실금 이자, 이자 정도는 어쨌든 써서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중도로서는 답은 받았었는데요.</p> <p>제가 사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을 뵙게 되면 이런 것까지 예산 확보라든지 법인화 지원금을 줘 놓고 은행에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해요.</p> <p>그러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7억을 다른 용도로 해서 그냥 날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면 지금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는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아놓은 거예요.</p> <p>사실은 지난번에 에스오케이에서는 건물 사는 데 그 돈을 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꼭 문체부하고 해서 용도를 넓혀놓겠습니다.</p>
이사: 임조성	7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회장: 홍순봉	작년에는 이자가 1년에 한 9백 얼마인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프로 맞아요?
사무국장: 박정진	네, 맞습니다.
회장: 홍순봉	1.8프로 됐다는데 원래는 3점 몇 프로에 계약했다면서요? 3.6프로인가? 그래서 한 2천만 원 되나 봐요. 올해 말이 되면.
사무국장: 박정진	네 맞습니다.
회장: 홍순봉	그래서 그렇게 이자로 이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용도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꼭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임조성	월세가 얼마인가요?
회장: 홍순봉	사무실 월세가 280이고요. 280이고 부가세 별도니까 한 308만 원.
이사: 임조성	이사 발생으로는 총당이 안 되네요.

회장: 홍순봉	안 되죠.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법인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사실은 그거 안 되면 모르죠.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사: 임조성	알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참여자 전원	없습니다.
회장: 홍순봉	감사 보고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이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의사봉
안전심의	
회장: 홍순봉	<p>그러면 안전으로 안전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p> <p>제1호 안전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 심의를 하겠는데요.</p> <p>감사께서는 주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특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p>
사무국장: 박정진	<p>네, 그럼 제가 주요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 위탁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클럽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p> <p>예산은 총 5천만 원이었고요. 12개소 400만 원 1개소 200만 지원하여 교실 사업을 13개소 진행하였습니다.</p> <p>두 번째로 장애 유형별 종합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를 2022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었고요. 이 대회는 우리 쇼다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로 개최되었습니다.</p> <p>다음은 2022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186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 축구 국내 심판 강습회, 쇼다운 국내 심판 강습회, 국내 시각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온라인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p> <p>다음은 시각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입니다.</p> <p>먼저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200만 원 예산으로 400만 원 3개소 프로그램 지원하였습니다.</p> <p>다음은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인데요. 1천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하여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p> <p>세 번째로 IBSA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지원입니다.</p> <p>2천만 원 2개소를 지원하여 총 4천만 원 예산으로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p> <p>다음은 시도지부 실무자 연수회 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시각장애인스포</p>

	<p>츠연맹 시도지부 실무자 연수회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도지부 실무자 연수 및 정상 교육 또 대제전 관련 참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p> <p>다섯 번째로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입니다. 제1회로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이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총 인원은 5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3,581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IBSA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입니다. 앞서 종목별 유형별 종합대회에서 선발한 쇼다운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로 IBSA 스위스 쇼다운 취리히 오픈 대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예산은 2,024만 9,319원이며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회를 참가하여 국제대회 참가 처음으로 쇼다운 금메달을 획득하는 큰 성적을 남겼습니다.</p> <p>다음은 이사 국제회의 참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참가했는데요. 저희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홍순봉 회장님과 제가 같이 참여했으며 쇼다운 그리고 시각축구협회 김홍진 회장과 강호용 회장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p> <p>IBSA 임원 미팅이 있었으며 그리고 일본 시각장애인 축구협회 방문 및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일본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하여 쇼다운과 시각 축구에 대한 발전 논의를 하였습니다.</p> <p>다음은 시각장애학생 스포츠 캠프입니다.</p> <p>2022 시각장애인 유소년 스포츠 캠프로 11월 5일, 11월 26일, 12월 3일 총 3번에 걸쳐서 스포츠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0여 명이 참가하였고요 예산은 2,6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캠프를 지역별로 3개소 개최하였습니다.</p> <p>네, 마지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등급분류 온라인 강습회를 저희 사업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체육계 사업과 병행하여 같이 진행하였습니다.</p> <p>이상의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p>
회장: 홍순봉	결산안하고 같이 묶어서... 결산안을 다 읽어 드려요?
이사: 김유환	이거 결산하는... 감사 끝난 거 아니에요?
회장: 홍순봉	맞습니다.
이사: 김유환	그냥 감사 보고로 갈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홍순봉	유인물로 할까요?
이사 일동	동의합니다.
회장: 홍순봉	그러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사: 이규일	하나 있어요.
회장: 홍순봉	예예 말씀해주시죠

이사: 이규일	네, 말씀해 여기 보면 항목 중에 과실금이라고 있는데...
회장: 홍순봉	그게 7억 이자입니다.
이사: 이규일	이게 그거예요?
회장: 홍순봉	7억 이자예요. 법인화지원금 이자
이사: 이규일	그게 과실금인가요?
회장: 홍순봉	네 그걸 과실금이라고 표현해요
이사: 신혜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데요...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이나 유소년 캠프 같은 경우는 지부에 있는 스포츠인 몇 명을 보내나요?
회장: 홍순봉	어떤 것을 말하시나요?
이사: 신혜린	생활스포츠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 저런 경기를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그걸 이제...
회장: 홍순봉	공모사업 같은 것 말입니까?
이사: 신혜린	네네 1,200만원 쓰고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떻게 공지를 하는지
사무국장: 박정진	대상은 저희 시도지부, 17개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 홍순봉	직접 사업은 우리가 스포츠연맹에서 직접 하고요, 공모 사업은 시도 지부에 교실 사업이라든지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사: 신혜린	네
회장: 홍순봉	그러면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그러면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의사봉
회장: 홍순봉	그 다음에는 제2호 안건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께서 주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무국장: 박정진	네.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제가 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 법인 단체 지원 시각장애인 체육진흥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8,37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첫 번째, 시각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00만 원으로 400만 원씩 3개소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유소년 스포츠 캠프 개최입니다. 총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유성을 대상으로 쇼다운, 시각 축구, 볼링 등의 시각 종목을 체험하는 체험 캠프와 전문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 체험을 할 수 있는 종목 체험 캠프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울림 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시도 지부를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어울림 대회를 개최를 지원합니다.

그 예산은 총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IBSA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입니다. 현재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입사 종목, 한 종목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IBSA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시도 지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국내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심판강습회 개최입니다.

쇼다운 국제심판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코로나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국제심판 강습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체육 발전 연수회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행정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행정 지도자 및 시각장애인 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각 스포츠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수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지부 실무자 연수회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또 체육대제전 및 그다음에 이나라 정산 교육 등 행정교육 등의 사업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스포츠 교류입니다. 올해는 IBSA총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서 총회 참가와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경기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 개최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예정하고 있으며 아직 시기와 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대회를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5천만 원으로 13개소 400만 원 12개소 200만 원 1개소를 지원하는 생활체육 교실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지원으로 우리 국내 스포츠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온라인 강습회와 쇼다운 국내 시판 강습회, 시각장애인 축구 심판 강습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p>다음은 국민체육지원기금 장애인 국내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국내대회 개최 지원은 사업으로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본 대회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IBSA월드게임에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전 대회로 정하고 있습니다.</p> <p>다음은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023년도 IBSA월드게임이 개최되는 해로 그리고 또한 IBSA세계 시각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 2개, 국제 종합대회에 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p> <p>먼저 IBSA세계 시각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종목 골볼 단일 종목으로 여자팀과 남자팀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p> <p>2023년 IBSA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입니다.</p> <p>2023년 8월 18일부터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1개 종목을 개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종목 골볼, 유도, 볼링 쇼다운 종목에 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은 아직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추후에 방통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p> <p>네 이상으로 주요 사업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p>
회장: 홍순봉	이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이사: 김유환	여기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회장님께서...
회장: 홍순봉	<p>지금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2억, 이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돼 있고 이걸로 가지고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기업체라든지 작년 예산, 작년에 행사를 치렀던 동영상이라든지, 또 어떤 사진 허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세일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각 기업체에 보내서 후원을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정부 예산 자체는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이걸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올해의 대회는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p>
이사: 김유환	<p>또 궁금한 게... 한궁인데...뭐냐면 제가 담당자분하고 국장님인가? 직원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궁을 갖다가 대제전에 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IBSA에서 계획한 경기가 아닌데...왜 이것을 본 경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어르신들 체육, 시각장애인에 의해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것을 본 예산 본 경비로 항목을 넣을 것인지...</p>
회장: 홍순봉	사실은 한궁 정도는 이벤트였고요 우선 볼링, 축구, 골볼, 쇼다운은 항상

	<p>고정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이 한공을 할 것인가 또 다른 대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p> <p>왜냐하면 이게 한공같은 경우에는 IBSA 종목도 아니고 사실은 체전 종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대회이면서 한공이 뭐냐면 전문체육 정도의 어쨌든 그런 실력이 전문적으로 연습을 해야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또 우리 이 시각장애인 지회 단위로 해서 한공이 좀 많이 도움이 된, 인구가 좀 많이 좀 확산이 때가 있어요.</p> <p>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묘미를 느끼고 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또 여러분이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정도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공이 매년 픽스돼서 종목이 선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p> <p>나중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체육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p>
이사: 김유환	<p>이게 사실은 지금 지체장애인 단체쪽에서는 한공을 키워보려고 하고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 치고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는건 사실이에요. 이것 좀 지원을 해서 본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p>
회장: 홍순봉	<p>그래서 어차피 시각장애인 지부나 지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지부장님이 지금 두분 계신데 어느정도 교실 사업을 하면 한 두해 정도는 전체 지부에 이전사업으로 다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사업들이 매일 익숙해져있는 종목만 교실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새로워하는 교실 사업을 해서 지부에서 그런 종목들을 접해보게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부장님들께 대의원 총회 때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늘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쇼다운도 우리가 세계시각장애인경기 15년도에 들어와서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입사에 정식종목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체전 정식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정식종목으로 키워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씨름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젊은 시각장애인들은 잘 없고 노인들을 시켜서 부상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흥미가 있거나 젊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면.. 민속씨름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TV 방영도 많이 하고 명절 때마다 하고 천하장사 대회도 하고. 그럴 때 이벤트로 하기 전에 시각장애인들 대회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호용 부회장님과 박정진 국장님, 직원들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죠. 강구를 해야합니다.</p>

이사: 임조성	15년 전만 해도 체육 대회가 있을 때마다 씨름 대회를 했습니다.
회장: 홍순봉	솔직히 저는 씨름대회도 한번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유명인 이사님도 야구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한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회를 하면 정말 시각장애인 축제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관심 있어 할 거고 재미있어할 그런 대회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사: 임조성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회장: 홍순봉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원종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총 얼마가 집행되는 겁니까?
회장: 홍순봉	전체 예산 받는 것 말씀입니까?
이사: 원종필	네, 체육회 예산이요.
회장: 홍순봉	작년에 예산으로 새롭게 신규로 확보된 게 5억이고, 기존에 받던 예산이 인건비 3명 등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이사: 원종필	그게 다 체육 기금인가요?
회장: 홍순봉	체육회에서 문체부를 통해 농아인스포츠연맹과 묶어서 법인단체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7억입니다.
이사: 원종필	그 기금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여쭙본 것입니다. 아까 사업 2천만원 지원 사업도 기금사업이고, 다른 두 개의 사업도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 박정진	모든 사업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별 교부되는 방식에 따라서 3억 9천만원 그 부분이 저희 연맹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체육진흥부 또는 생활체육부 또는 체육인지원센터 이렇게 각 부서에서 받는 사업들을 저희가 체육계의 지원 사업으로 기입해냈고요, 나머지 3억 9천에서 저희 대제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무자 연수회 등등의 사업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 원종필	사업비에서는 없습니까?
국장: 박정진	네 없습니다.
부회장: 강호용	5억을 작년에 증액된 부분에서 3억9천에서 사업별로 별도로 나가고 가맹단체 인건비로 포함되어서...
회장: 홍순봉	묶여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 원종필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사: 임조성	3억9천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조금 뽐뽐하네요
회장: 홍순봉	많이 좀 늘려야... 최종적으로는 한 13억 정도만 더 확보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부에 좀 많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회장: 홍순봉	그러면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의사봉
회장: 홍순봉	제3호 안전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규정 개정안입니다.
국장: 박정진	<p>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규정 개정안입니다.</p> <p>주요 내용으로 먼저 등급의 종류별 시야에 대한 수치를 명확하게 개입하는 개정안 제4조 2호 및 3호, 4호입니다.</p> <p>또한 공개 종목의 등급분류 유효 기간을 예외로 적용하는 제5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등급분류 양식의 선수 정보, 연락처, 계정 및 기능 판정 표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계 종목의 선수 등록 기간이 1월 중으로 마치기 때문에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한 시기가 너무 짧다는 동계 종목의 종목별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유효기간을 예외로 적용하는 스포츠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입니다.</p>
회장: 홍순봉	또 다른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세요.
국장: 박정진	<p>그럼 제가 친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p> <p>제4조 등급의 종류에서 2호 B2 '단안 시야가 5도 미만이어야 한다' 에서 '단안 시야'가 '지름 10도 미만이어야 한다' 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3호 '시야가 5도 이상 20도 미만이어야 한다'에서 '지름 10도 이상 40도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제 4호 '단안 시야가 20도 이상인 경우'에서 '단안 시야가 지름 40도 이상인 경우'로 개정될 예정입니다.</p> <p>위 사안은 등급의 종류별 시야에 대한 수치별 지름과 지름으로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명확하게 다시 표시한 내용입니다.</p> <p>다음은 제5조 등급 분류의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종목에 재심사 등급의 유효 기간을 예외로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p> <p>그래서 제5조 등급 분류 유형 2호 '다만, 동계종목의 경우 재심사 유효기간을 차기 연도 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어 개정될 예정입니다.</p> <p>그리고 마지막 별지 4호와 별지 6호의 등급 분류 양식지에 대한 개정입니다.</p>

	<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정보에서 선수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에 등급분류사분들께서 등급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등급의 유형과 그다음에 등급의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등급 분류 양식에서 표시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p>
회장: 홍순봉	<p>등급 분류 규정 개정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등급 분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체육회도 어떻게 못하는 걸 우리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서, 체육회 할 일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p> <p>이 부분은 또 우리 강호용 부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이 등급 분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2명 있다가 사실 울산에 한 명 있었고 우리 김안과의 김응수 박사라고 지금은 중앙대 병원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하고 두 분밖에 없었는데 사실 울산분은 그다지 안 하다 보니까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급분류사 양성을 계속 시켜가지고 지금 등급분류가 가능한 안과의사들 34명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시각장애인 등급 훈련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선수들 실행비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p> <p>그 다음에 의사들이 귀찮으니까 안 하려 그래요. 돈도 잘 버는데 이거 굳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지만 한 5만 원 정도를 의사한테 한 건당 그렇게 해서 줘야 이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체육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빨리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이사: 임조성	<p>강호용 부회장님, 4조의 경우 확대가 된 겁니까 강화가 된 겁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p>
국장: 박정진	<p>등급의 종류 말씀하시는거죠? 수치는 변동이 없는데요, 그 전에는 반지름으로 표기되던 것을 지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p>
부회장: 강호용	<p>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p>
국장: 박정진	<p>용어만 바뀐 겁니다.</p>
이사: 임조성	<p>예, 알겠습니다.</p>
이사: 이규일	<p>등급분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그러면 국가자격시험인가요, 민간 자격인가요?</p>
국장: 박정진	<p>등급분류는 민간자격으로 현재 스포츠연맹에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 대상은 안과의사만 대상자가 됩니다. 안과 의사를 대상으로 연맹에서 강습회를 통해서 민간 등급분류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p>

회장: 홍순봉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회장: 홍순봉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의사봉
회장: 홍순봉	제4호 안건인데요. 위임 전결 규정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무처의 직제가 개정되고 강호용 부회장님이 상임이사로 가면서 사실 제가 연합회에 있다가 강호용 부회장님한테 위임됐던 걸 되찾아 온 게 있고, 또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렇게 담당자들의 전결권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일동	네
회장: 홍순봉	전결 규정 개정안은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의사봉
기타 안건심의	
회장: 홍순봉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된 단계 다 오셨는데 기타 안건은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님들.
이사: 임조성	혹시 올해 체육대제전은 대략 어디에서 개최할 지 계획이 잡힌 게 있으신가요?
회장: 홍순봉	질문 잘하셨습니다요. 회장님이 질문하시니까 회장님 지역에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강원도 횡성에 웰리힐리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있대요. 저도 그냥 리조트에 두세 번 간 적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뭔가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아마 그쪽을 후보지 중에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임조성 이사님께서 강원도 체육회하고 또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이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임조성	조금 작년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만약에 올해 이렇게 되면... 아무튼 횡성 지역에 있는 도위원회의 위원사업비를 뺏어보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지금 대회 개최 기간은 9월 정도로 9월 중순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체전을 피해서 하려면 9월 달 정도에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의 금, 토, 일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지난번에는 평일 날 하니까 선수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바우처 안마라든지 경로당 파견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평일 날 3일씩 빠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주말을 끼고 하면 금,토, 일 이라면 저희들 우리는 숙박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p> <p>평일하고 리조트 숙박료가 엄청나게 달라요.</p>
이사: 임조성	주말을 끼면 직원 활용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회장: 홍순봉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요청들을 또 많이 왔어요. 이게 평일 날 좀 하지 말고 주말에 해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게 나오지...
이사: 임조성	동의자들의 상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그거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동의자들의 상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회장: 홍순봉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상금 받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1, 2, 3등밖에 더 이상 줄 수는 없잖아요.
이사: 이석동	위원 사업비를 한 3천만 원만 빼면 그거 충분하지 않나요.
회장: 홍순봉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사: 임조성	하여간 노력해보겠습니다.
회장: 홍순봉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맨날 대회하면 상금을 줘야 한대요. 근데 사실 외국은 메달을 따면 굉장히 좋아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이사: 유명인	복지가 잘 되어있으니까요.
회장: 홍순봉	그래서 우리는 돈 안주면...
이사: 임조성	자기네 말처럼 저런 거는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있어서...
부회장: 강호용	종합대회로서 이상이 되든가... 앞으로 이제 미래를, 장래를 생각하면 이 대회 정도는 상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일대회던가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이걸 상금을 취득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임조성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사: 유명인	일단 직장인들 하루에 일단은 참가하면 하루에 5만 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회장: 홍순봉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거죠. 우리 강 부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일 대회

	<p>에서 입상을 하면 상금을 주고 메달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종합 대회거든요.</p> <p>종합대회인데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고 종목도 여러 개고, 그런데 이게 상금을 다 이제 주려면 만들 순 있어요. 많지 않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상금을 만들 순 있는데 그 대회의 권위 문제라든지 그렇게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첫 대회 때 상금을 줄까 안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상금을 주는 대회가 앞으로 한 번 하고 말 때가 아닌데 오히려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요.</p>
이사: 임조성	<p>오히려 그럼 차라리 인센티브 같은 걸 주자 이거지. 불링 같은 경우 입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뭔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혹시라도 그 욕심에...</p>
회장: 홍순봉	<p>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원래부터 모든 종목에 국가대표 선발권하고 같이 겸할 수 있고, 또 그런 포인트가 주어지고, 그거를 계속 모든 종목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p>
이사: 임조성	<p>그럼 됐습니다. 메리트가 있지.</p>
회장: 홍순봉	<p>그렇게 불링도 그렇고 골볼도 그렇고 축구 쇼다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p>
이사: 임조성	<p>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p>
회장: 홍순봉	<p>어쨌든 제가 확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윌리힐리 이런 또 리조트도 좋고 또 횡성에 고기도 맛있잖아요.</p>
이사: 임조성	<p>횡성에 고기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 비쌉니다.</p> <p>그리고 윌리힐리 식사하고 예약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애들이 떼어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세 번째에 완전히 식사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그 다음부터 안 갔거든요. 인프라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놈들이 애들이 끼니까 식사가 아주 예약한대로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식사하실 때 아메 메뉴를 정해서 갑자기 업체에서 못 바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회장: 홍순봉	<p>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p>
이사: 원종필	<p>제안을 하면 체육대제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1년 전에 장소 같은 것들을 픽스하고 미리 좀 알리고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가 막상 다가와서 일정들이 있으면 그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두면 모든 사람이 다 100% 만족을 할 순 없지만,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p>

	<p>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들 다른 이런 비슷한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보면 보통 1년 전, 혹은 2년 전에는 이렇게 어디서 할 건지 확정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달에 할 건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p>
회장: 홍순봉	<p>맞습니다. 그게 100번 읊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순회 개체를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될 때예요. 지부마다. 우리가 마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회가.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에 맞추고 경기장, 거리, 숙소,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대회하기 전부터 올해 개최할 지역을 찾으라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막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해서 경기장 확보라든지, 숙소, 거리, 숙소에서 몇 끼를 줄 수 있냐, 돈이 얼마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p> <p>근데 사실 지자체를 끼고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부가 활성화 되고 돈이 좀 확보가 되면 지부에다가 개최 신청을 받아야죠. 내년에는 부산이 하고 내년에는 강원도, 인천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 개최를 하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줘야 사실 예산 확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는 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지키고 돈도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p>
이사: 원종필	<p>저는 건의사항으로 그냥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p>
회장: 홍순봉	<p>향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p>
이사 일동	<p>없습니다.</p>
<p>폐회선언</p>	
	<p>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 스포츠연맹의 정기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이사 일동	<p>예</p>
회장: 홍순봉	<p>그러면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정기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회장: 홍순봉	<p>의사봉</p>